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저녁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G20 서울 정상회의 업무 만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안전망 담은 '서울 선언' 지구촌 눈 집중

G20 정상회의 개막

세계 주요 국가들이 망라된 G20(주요20개국)의 정상들이 서울에서 세계 경제의 미래를 놓고 머리를 맞댄다. 특히, 정상선언이 발표될 12일 오후 4시 서울 코엑스에는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된다.

◇환율 합의 이뤄지나=G20 회의의 본격적인 시작은 12일 오전 9시. 회의는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로 시작될 예정이며 첫 세션은 전날 만찬에 이어 '세계경제 및 프레임워크' 의제가 다시 테이블에 오른다.

환율 전쟁의 종식으로 나아갈지, 낮은 수준의 합의라도 이끌어낼지, 아니면 경주합의 수준을 되풀이할지가 이번 회의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국의 경제적 이익이 걸린 각축전

인 만큼 정상들이라고 하더라도 격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세션이 끝나면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논의하는 2세션에 들어간다. 3세션은 이명박 대통령이 방점을 찍은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하나인 '개발' 의제를 논의한다.

G20 밖의 개발도상국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는 개발 의제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쉽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전에 예정된 3개 세션이 끝나면 점심식사가 이어진다. 그러나 시간 여유가 없는 만큼 오찬장에서도 회의는 계속된다. 자투리 의제에 속하는 무역과 기후변화, 녹색성장이 거론될 예정이다.

정상들은 숲 돌릴 때도 없이 오후에도 금융규제개혁을 논의하는 4세션과 에너지, 반부패, 비즈니스 서밋을 논의하는 5세션을 진행한다.

◇서울 선언 발표=정상회의의 대미는 1박 2일 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정상선언문 채택으로 장식된다. 이번 선언문은 내용에 따라서는 향후 세계 경제와 금융 분야의 새로운 질서, 세계 경제 권력의 이동 등이 담길 가능성이 커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후 4시 코엑스 1층 미디어센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상선언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일단,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에는 글로벌 환율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 장치들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 환율 문제를 해결할 경상수지 가이드 라인을 놓고 20개국 정상들이 11일 저녁 최종 조율에 들어간 상황이다.

일단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결정적 환율 이행의 필요성을 재확인

하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합의 사항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로 하며 과도한 경상수지를 감시할 조기 선언문은 내용에 따라서는 향후 세계 경제와 금융 분야의 새로운 질서, 세계 경제 권력의 이동 등이 담길 가능성이 커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 등을 담은 '코리아 이니셔티브'와 금융 규제 개혁, 무역 자유화, 국제금융기 개혁, 에너지, 반부패 분야는 사실상 서울 선언을 위한 합의를 마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내버스 준공영제 주민감사청구 쟁점

“광고수익금·임금 부당지급” 시·업체 “사실 아니다” 반박

광주시 반박자료 첨부 이의신청키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는 전국에서 최초인 만큼 실제로 감사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과 광주시 및 버스업체 등이 각자 사안마다 큰 의견 차를 보이고 있고, 광주시는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일일이 반박자료를 첨부해 국토해양부에 '감사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광고수익금 부당지급 됐다=감사 청구 주민들은 광고수익금과 관련 경비체제를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하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 등을 담은 '코리아 이니셔티브'와 금융 규제 개혁, 무역 자유화, 국제금융기 개혁, 에너지, 반부패 분야는 사실상 서울 선언을 위한 합의를 마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에 대해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광고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으며, 광고수익금은 개별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임금대장 작성했다=운송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인 인건비다. 이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는 따라서 준공영제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다. 감사 청구 주민들은 일부 버스업체들이 재택 대기 중인 직원에게 수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거나 관리자 및 정비원에게 임금 이외에 성과급 형식으로 수백만원의 지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버스업체는 2년 근무한 직원에게 1417만원의 퇴직금 외에 6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일부 버스업체는 직업이 있는 가족 또는 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 직원을 임원·직원으로 명부에 올려 임금

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가족을 임원이나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개개 업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누락했다=시내버스 10개 업체 중 8개 업체는 매년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통자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운송수익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감사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퇴직한 운전원 등을 재고용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지만 이를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광주시의 지원규모를 늘렸다는 것이다. 버스운송사업조합측은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은 기타 수익으로 명백히 회계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광주시도 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유엔 인권도시 선정되게 도와 달라”

강운태 광주시장 반기문 총장 만나 지원 요청

강운태 광주시장이 11일 서울 국회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만나 광주시의 유엔 인권도시 선정과 2011년 도시환경경협 광주정상회의의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엔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의원회관을 방문 중이던 반 총장을 찾아 예정에 없던 면담을 신청했다.

반 총장은 이날 의원회관 대강당의 포럼 회의가 끝나자 의원회관 의원식당 앞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경호팀의 삼엄한 통제 속에 십여명의 인사와 면담을 했으며, 강 시장도 30여분 이상 기다린 끝에 반 총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지난달 미국에 가서 직접 보고 설명하려 했으나 그때 총장께서 중국에 가셔서 못 보고 이번에 도와주시고 하고 이렇게 찾아왔다”며 준비해 간 자료를 보이며 3가지 건의를 했다.

강 시장은 먼저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로서 그 정신적 가치를 높게 평



가받고 있으며 그동안 인권조례와 인권지수를 만드는 등 민주·인권·평화 증진에 앞장서왔다”며 광주가 ‘유엔 인권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또 “유엔은 환경도시와 음악도시를 지정하기도 했다”며 “광주가 유엔에 인권도시를 신청하면 유엔 법무관실이 현장 실사를 한 뒤 사무총장과 협의해 결정하니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 총장은 “자세한 것을 검토

해서 돕겠다”고 답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에서 2011년에 도시환경경협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니 격려 차원에서 총장께서 개막식 기조연설을 해주셨으면 한다”며 “또 광주정상회의에 UNEP(유엔환경계획)가 공동 개최 기관으로 참여토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마지막으로 코엑스(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2011년 뉴욕에서 개최기로 합의한 세계김치문화축제를 유엔본부 광장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반 총장이 “대규모 공사로 광장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설명하자 “다른 부분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거듭 지원을 부탁했다.

반 총장은 강 시장이 전한 자료를 수행원을 통해 챙기며 “잘 알겠습니다. 과거 장관 할 때도 그러시더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셔서 열심히 하십니다”라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반 총장은 강 시장과 면담이 끝나자 서둘러 의원회관을 나갔으며 강 시장은 반 총장이 차에 오를 때까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 하루도
저를 기운 나게 하는 건,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 다시 한번 멋있게
프로포즈하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ING생명과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ING생명 고객 류승필

20년간 고객의 꿈과 함께 해 온 ING 당신도 만나보세요

- 외국계 생명보험사 중 1위 (수입 보험료 기준 2010년 6월 현재)
고객을 잘 알기 위해 노력한 결과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 4년 연속 보험금지급능력 AAA (한국기업평가(주), 2007~2010)
항상 든든한 재무구조로 고객들의 믿음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 20년 간 200만여 건의 보유 계약 (2010년 10월 현재)
20년간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며 풍부한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광양항 배후시설 7년만에 완공

18일 김항식 국무총리 참석 준공식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됐던 광양항 배후시설이 7년 만에 모두 준공됐다.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오는 18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앞에서 김항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광양항 배후수송시설 준공식'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양항 배후수송시설은 남해고속도로와 광양항을 연결하는 화물 전용 도로를 확보해 물류수송비를 절감하고 화물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항만 배후수송망으로, ▲동·서측 배후도로 ▲동·서측 인입철도 ▲부두 연

결도로 ▲부두내 도로 등 총 6개 노선(도로 4·철도 2)이다.

이들 시설은 지난 1993년 착공된 뒤 각 사업별로 준공식을 했고 18일 모든 공사를 최종 마무리한다. 총 소요사업비는 1조1627억원에 이른다.

컨테이너부두 화물의 수송을 위해 남해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전체 28.7km의 도로는 지난 10월 준공했고 동·서측 인입철도(9.6km)는 지난 7월 마두리대 경전선으로 연결됐다.

또 광양항 3단계 준설로 투기장도 지난 2002년 착공된 지 8년 만에 이날 준공, 7200만m의 준설토 수송이 가능해졌다. 2859억원이 투입된 투기장

준공으로 해양 환경 보호에 도움을 주는 한편, 자원 재활용을 통한 산업용지 활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지난 2003년부터 1920억원을 들여 추진한 준설 작업도 5년만인 지난 2008년 마무리돼 16m의 수심을 확보함으로써 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한편, 광양경제청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이번 배후시설 준공에 이어 오는 2015년까지 모두 5조8893억원을 들여 광양항에 25선석 규모의 컨테이너부두, 4선석 규모의 잡화부두를 갖추고 388만㎡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해 동북아 비즈니스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지경기자 dok2000@kwangju.co.kr